

청정석탄 및 CCS 국제협력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변화기술연구본부

(ckyi@kier.re.kr*)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및 국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고려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등의 환경오염물을 저감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청정석탄기술의 의미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시범화 사업은 대규모 상용급으로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도 작지 않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기구를 만들고 대규모 시범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IEA GHG(International Energy Agency Greenhouse Gas), APP CFE(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Clean Fossil Energy), APEC EGCFE(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xpert Group on Clean Fossil Energy)등이 청정석탄 및 이산화탄소포집저장 관련 시범화 사업들을 추진하는 국제협력 기구들이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국제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범화 사업들을 국제협력기구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